

일진제강, 2000억 추가 투자 확정

도-임실군과 2차 협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화 추진에 탄력 받을 듯

동부권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주)일진제강이 2,000억원의 추가 투자를 결정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 및 건설 중장비용 정밀금속 강관 및 관련 업종 클러스터화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1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지사와 심민 임실군수, 정호영 도의회 부의장, 유정금 임실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한완수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군에 투자하는 일진제강(주)과 투자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은 지난 2009년 12월 임실 제1농공단지에 전북도 임실군과 제1차 투자협약에 이은 후속 계약이다.

현재 임실에서 가동 중인 일진제강은 4만여평 규모로 3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심리스 강관 및 정밀인발강관을 생산하고 있다.

일진제강은 임실 제2농공단지 26만 4,938㎡(8만1평 정도) 부지에 2018년 초 공장을 착공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 공장에는 수원사업장(화성공장) 일부가 이전 되고, 공장 준공 완료까지 약 2,000억원 300여명의 일자



1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이교진 일진제강(주) 대표이사, 심민 임실군수 등 참석자들이 일진제강(주) 2천억 추가 투자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금속조립구조재, 자동차 부품, 중장비용 정밀강관 등을 제조해 기존 1공장과 함께 전북도를 강관제조 클러스터화 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로 기존사업의 확대 및 신규사업 진출 등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일진제강(주)은 향후 자동차 부품으로의 업종확대 및 기계관련업체에 가공제품들을 납품함으로써 전북도 내의 독자적인 관련산업 업종의 클러스터화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향후 협력업체도 동반이전시킴 계획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일진제강의 투자는 전북

도 동부권 균형발전 및 임실, 순창, 남원 등 내륙지역 발전의 신평탄으로 동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향후 더 많은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송하진 지사는 "일진제강이 입주계약과 함께 빠른 시일 내 공장건설 및 준공이 이뤄지도록 임실군과 함께 모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명실상부 전북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교진 일진제강 대표이사는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임실 제2농공단지 투자를 조기에 마무리지어 일진제강을 글로벌 초일류 고부가 특수

강관 및 자동차 부품 전문제조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임실을 주무대로 발판 삼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진제강은 1990년대 화섬용 보빈 제조를 통해 축적된 정밀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정밀 냉간 인발 강관과 정밀 이형 형상재 등으로 제품 영역을 확장해 높은 고질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제품을 인정받으며, 핵심 사업영역을 성공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고, 축적된 소재 기술, 정밀 냉간 인발 기술, 열처리 등 후처리 기술 등은 일진제강의 핵심역량으로써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는 글로벌 초일류 강관전문제조기업이다. /인재용 기자

민주화운동 의미 되새기다

이 땅에 자유와 민주를 꽃피운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제37주년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7일 전주 한국전문문화재단에서 열렸다.

한국전문문화재단서 5·18 기념식 개최

오늘 도내서 사진전시회 열사 추모식 등 행사 열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5.18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 김원술 지부장 및 회원, 시민단체 등 230여명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평화의 메시지, 문화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5.18구속부상자회 김원술 전북지부장은 "5.18 정신은 우리 국민 모두를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끌어 준 숭고한 평화이념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열사들과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신 부상자, 그리고 유가족들의 값진 희생이 이처럼 성스러운 역사와 숭고한 이념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 줬다"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맞이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 및 그 역사적 의미를 재인식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송하진 지사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찬 전북을 향해 전진하기를 희망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민주주의를 향해 한발 더 나아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제37주년을 맞이해 도내에서는 5.18 민중항쟁 제37주년 기념 사진전시회, 이세종·임군수 열사 추모식, 전주신흥고 80년 5.27투쟁 제37주년 기념대회, 광주 망월동 국립묘지 참배, 청소년 율타도토크, 청소년과 주박으로 함께 나누는 민주항쟁의 정신 계승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인재용 기자

"북핵·미사일 도발 용납 못해... 강력 대처"

문 대통령, "국방개혁 빠른 시행... 방산비리 재발 막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로,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최근 급격하게 고도화되고 또 현실화 됐다"면서 "북한은 사흘 전에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군을 믿는 다. 우리 군은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철통같은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만약 적이 무력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간 우리의 정

치 상황이 급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군이 안보를 튼튼히 받쳐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자주적인 방위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전쟁 여제를 위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도 굳건하게 유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신의 공약사항인 국방개혁과 관련,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기간 동안 국방 예산을 점차 증액하고,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해서 재래식전쟁은 물론이고 사이버전, 대테러전, 우주전 등 미래전에 대비해나가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면서 "국방개혁 2030을 통해 설계했던 국방개혁 방안의 조속한 실행과 방산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시장 중심 도약 선도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올해 말 산업단지 준공을 앞두고 식품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 6대 기업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3대 R&D 센터인 '기능성 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 센터'에서는 입주·관심기업에 대상으로 여러 기술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기능성 평가센터는 건강기능성 개발을 지원하고, 품질안전센터는 기호적 품질 분석과 안전성 분석, 패키징센터는 포장재 성능, 안전성, 디자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지원 사업을 통해 B사는 신제품 개발 1건, 특허출원 1건의 기술

6대기업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성 평가센터 등 기술지원도

오늘 식품기업 인력조달 문제 입주기업들과 함께 해결방안 모색

개발 이후 6개월간 매출 10억원 달성 및 판매처 확대(2개~6개) 등의 성과가 있었다.

또한 식품관련 신기술 및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벤처 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임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중견·중소 기업으로 육성시킬 목적으로 건축된 식품벤처센터에는 지난해부터 입주기업이 선

발돼 운영 중이다.

총 52실의 공간으로 이뤄져 있는 벤처센터에는 현재까지 23개 기업이 임대계약을 완료하고 16개사가 입주했으며, 최근 선정된 4개 기업이 임대계약을 앞두고 있다.

분양·입주기업에는 합된 비용(50%)으로 시설을 활용 할 수 있게 해 현재까지 12건의 시제품 생산을 의뢰 받아 지원했다.

지원센터는 3대 R&D센터와 벤처센터, 파일럿 플랜트 운영을 지원하고, 식품 기업 유치 활동 및 기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센터의 사업들과 함께, 지난해 전북도에서는 기관협업 간담회를 통

해 원료수급·인력조달 분야에 대한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했다.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지난 3월에는 전북 우수 농산물을 기업들에 원활하게 수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 도, 익산시, 농협 관계자, 입주기업 등 약 20명과 원료중계체계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원센터에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도농협중앙회와 각 시·군의 통합마켓팅조직을 통해 원료를 공급하는 방안이 합의했다.

특히 18일 예정된 회의에서는 식품기업 인력조달에 대한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도, 익산시, 입주기업과 폴리텍대학, 전북농자리조합센터 관계자 등이 모여 해결 방안을 모색 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고창의 복분자 브랜드 "베리웰"과 땅콩 브랜드 "웰피넛"으로 따뜻한 마음을 선물하세요.

고창 복분자, 땅콩 건강과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www.berrywell.co.kr

다양한 제품을 만나 보세요

복분자, 땅콩 선물세트 주문 전화 **1544-1589**

선운산농협 조합원. 고객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창읍 석정리 727 TEL: 063-563-7255

웰파크 지점

최고의 품질, 친절한 서비스
선운산농협 직접 운영

고창 한우 명품관

건강한우 명품관(식당 136석/연회장 116석)

농협은행 / 하나로마트(140평)

본점 -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330
 복분자공사입소 - 전북 고창군 아산면 계선리 403-14